

**날짜:** 5786 년, 12 월 1 일 (2026 년 2 월 18 일)

**토라 문:** Terumah (예물)

**주제:** 세상과 샬마임의 상반적 이치

출애굽기(25:2)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를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은 잠언(4:2)의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나의 법(תּוֹרַת) 토라티)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구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미드라쉬(Midrash)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팔 때 그것과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고,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 구절 자체만으로는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탈무드(Berachos 5a)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구매 한 자"가 그 습득물을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 13:44-58).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토라를 주신 후에도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그것을 "선한 도리"라고 찬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석에 따르면, 윗 구절은 토라를 하나의 '취득 물(acquisition)'로 묘사하며 시작하지만, 이어서 "내가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토라가 비록 '판매'된 것으로 묘사될지라도,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최상의 선물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충족 되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셨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에 따르면, 구매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얻었을 때 그것이 손상되거나 도난 당 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 토라의 경우는 이와 반대입니다. 그의 토라 말씀이 그 취득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잠언 (6:22)에 기록된 것처럼, "네가 다닐 때에 그것(토라)이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이치 중에,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주인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토라(빛)인 최상의 선물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토라와 함께, 말하자면 여호와 나의 엘로힘(권능)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직역: 나를 위한 몫을 취하라)"는 말씀 속의 참뜻입니다.

게마라(Megillah 19b)는 모쉐께서 시내산에서 먼 훗날에 있을 현인들에 의한 토라 말씀의 분석까지도 보았다고 가르칩니다. 하기가(Chagigah 3b)에서 란(Ran)은 이 '현인들의 분석'이 후대 현인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될 쟁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모쉐가 토라의 시내산에서 토라에 모든 법을

배웠을지라도, 나중에 나오시는 현인들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될 법들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최종 판결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그는 후대의 토라 현인들이 그러한 문제에서 결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지침을 전달 받았으며, 현자들의 결정(할라카)들이 인정된 법례가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엘로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을 때, 그것은 차 후에 땅으로 보내주실 토라 주석의 현인들이 토라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 바에 따라 성취되도록 미리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토라는 하늘에서는 이상적 형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토라의 말씀이 인류에게 주어진 이상, 여호와와의 토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태어난 현인들에게 부여 주신 지혜에 따라 말씀 뜻의 의미가 정리되었고, 성문 토라에서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록에 대하여, 그들이 정리한 바에 따라서 시행해야 했습니다 (신. 29:29).

미드라쉬의 또 다른 대목에서 엘로힘께서는 "나는 나의 토라와 헤어질 수 없지만, 너희에게 '토라를 가져가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구나"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엘로힘은 이스라엘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이미 토라를 그들의 관할권에 이스라엘 네뻬쉬(영혼)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로힘은 토라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토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미드라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분께서 거하실 미쉬칸(משכן 성소)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전에 나타난 여호와 엘로힘의 쉼기나 (שכינה 신성한 임재)를 통해 그들이 판결을 내릴 때 그 임재의 도움을 받아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엘로힘은 "토라를 이스라엘 중에 참된 지도자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에게 내어 주셨으며", 그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었으니, 나의 토라를 버리지 말라"는 구절은 여호와 엘로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취득물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즉, 내가 너희의 이해력에 따라 법을 결정하도록 나의 토라를 너희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 이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토라의 법을 결정하는 자들은 필요한 모든 노력과 수고를 쏟아야 하며, 여호와 엘로힘의 뜻을 위해 진리에 도달하려고 온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토라를 버리지" 않게 되고, 마땅히 판결해야 할 옛길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그들의 실제 판결이 그들이 이해한 토라의 의도까지 하나로 연합되어 따르게 될 것이며, 그들의 결정이 여호와 엘로힘께서 오늘날 우리가 꼭 성취하기를 바라시는바로 그 "살아 있는 빛, 리빙 토라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샬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후다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호슈아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후다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엘로힘이라 함이로라 예호슈아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토라 말씀]은 폐하지 못하나니 엘로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여호와] 엘로힘의 아들이라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요. 10:30-38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1